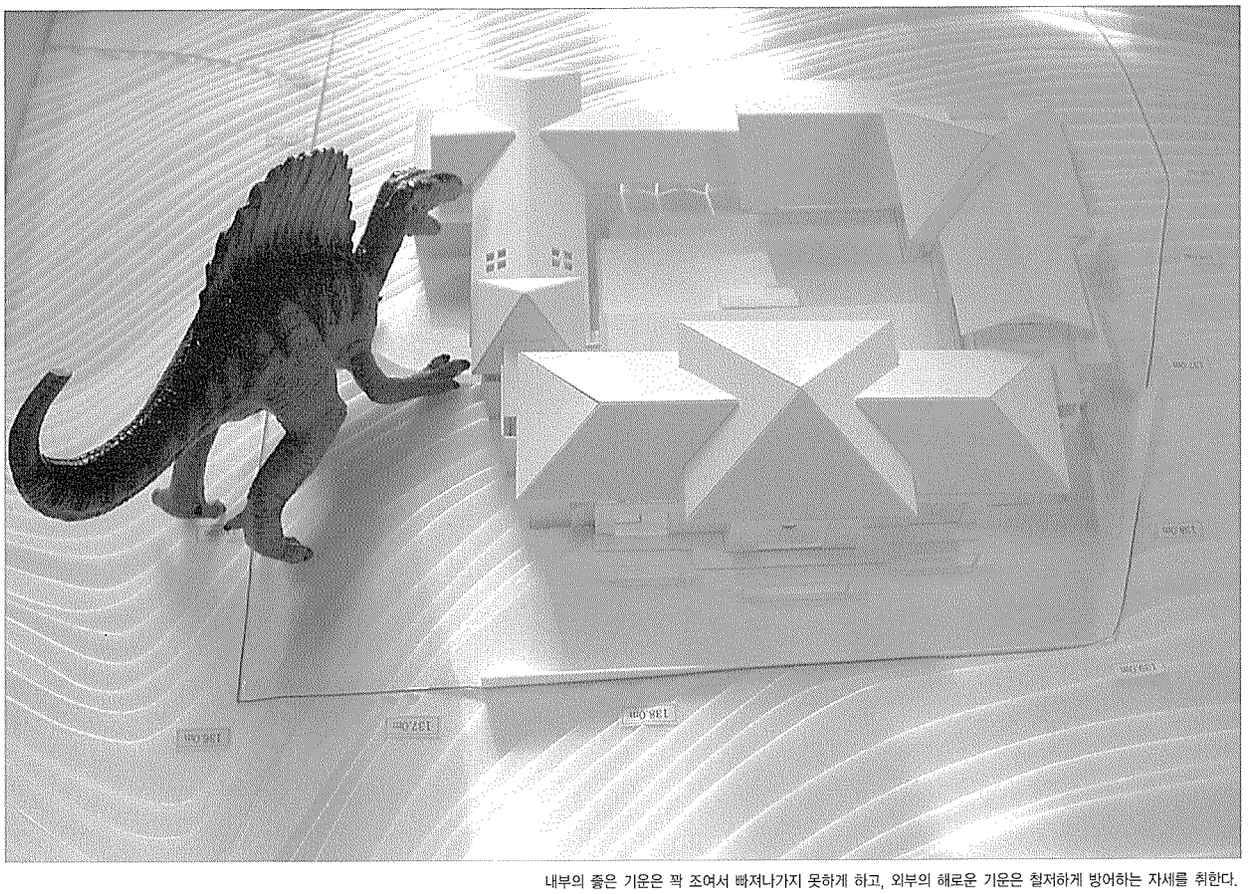
조인철 / 건축사사무소 자연과건축
by Zho In-Choul

삼합헌
SamHapHeon



내부의 좋은 기운은 꽉 조여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외부의 해로운 기운은 철저하게 방어하는 자세를 취한다.

지형의 분석

삼합헌은 주산(主山)인 원효봉(604.7m)에서 청룡과 백호의 줄기가 좌우로 감싸며 내려오고, 가운데 현무에 해당하는 줄기가 쌍으로 내려오는 곳에 터를 정했다. 좌(坐)방위에는 원효봉이 받쳐주고 향(向)방위에는 덕숭산이 조아리고 있다.

전체적인 형국을 보면 동남방위가 열려있고 나머지 방위는 덕숭산, 가야산의 줄기가 연결되면서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형국 속에 떨어진 빗물은 hen 골짜기로 모여서 결국 동남방위로 빠져나간다. 전체적으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서고동저(西高東低)의 형세인 것이다. 덕숭산의 남쪽사면에는 수덕사가 자리하고 가야산의 세봉우리인 가야봉, 석문봉, 옥양봉이 감싸는 아래에는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가 있다. 큰 형국으로 보았을 때 삼합헌은 수덕사와 남연군묘가 있는 양쪽의 가운데 골짜기를 찾아 들어가 터를 골랐다.

계획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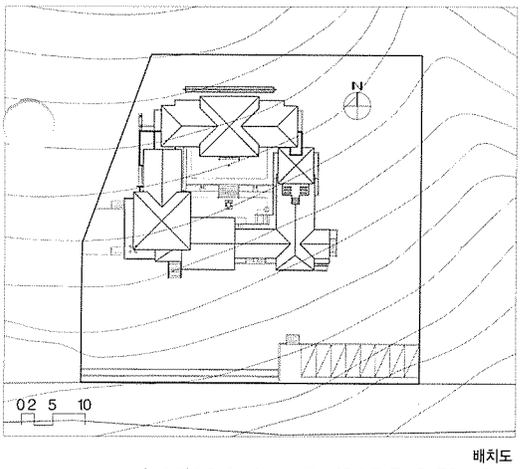
우선 건축물의 배치는 주변의 형세를 본받아 동쪽으로 열리고 주변이 둘러싸진 '미음자' 형으로 하기로 정했다. '미음자' 집의 경우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내부의 마당을 아주 정제된 형식으로 다듬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외부의 환경은 인간이 직접 접하기는 거칠고 험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어떻게 조율하여 인간에게 적합하게 가다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음자' 집에서 생기는 중정(中庭)의 공간은 외부와 내부의 중간적 성격의 공간이다. '미음자' 집의 단점은 건축물의 표면적이 '일자형'에 비해서 넓어지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긴다. 도심지의 좁은 땅에서는 높이제한에 묶여 시도하기 어려운 건축형식이다.

주어진 대지에서 '미음자' 집이 되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대지 앞뒤의 높낮이 차이가 3m 정도 되는데, 이를 건축물 안에서 흡수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가운데 중정을 둘로 나누고 단을 주었으며, 실내에서는 군데 군데에서 적절히 단을 주어 소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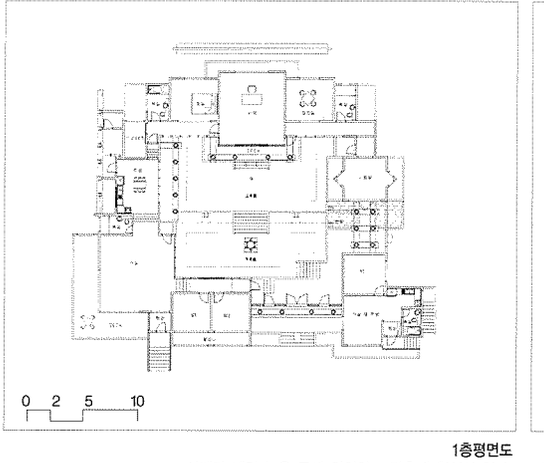
'미음자' 집에서 첫째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개방감과 폐쇄감의 적절한 조율이다. 접근도로에서는 쉽게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게 하고 안에서는 바깥경관을 보는데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야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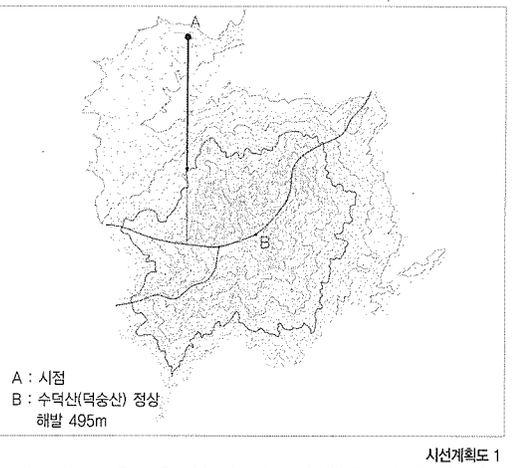
집안에서 제일 위계가 높고, 건축물의 높이가 높은 곳은 집주인이 사용하는 서재이다. 서재에서 바라볼 때 덕숭산에 의해서 능압(陵壓 : 능멸하고 압박함)에 걸리지 않고 산의 적정한 높이부분을 끌어들이는 시선의 정리가 필요하다. 서재에서 바라볼 때 '미음자' 집의 남쪽에 위치한 실들의 용마루높이가 시선의 하한선(下限線)이 된다. 시선하한선 아래의 부분은 서재에서 보이지 않고 지붕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는데, 덕숭산 북쪽사면의 아래부분으로서 일부 개발흔적이 있어서 다소 지저분한 흔적이 있는 곳이다. 시선의 하한선 계획은 덕숭산의 깨끗한 느낌을 주는 윗부분만 차경(借景)하겠다는 것이다. 시선하한선의 검



배치도
'미음자' 집의 형식이다. 가운데 2단으로 구분된 중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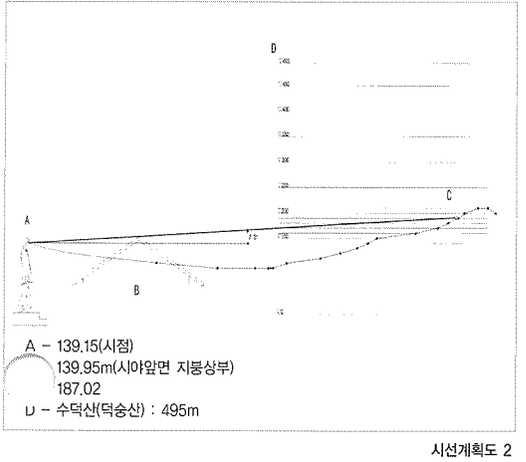


1층평면도
서재가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좌측에 침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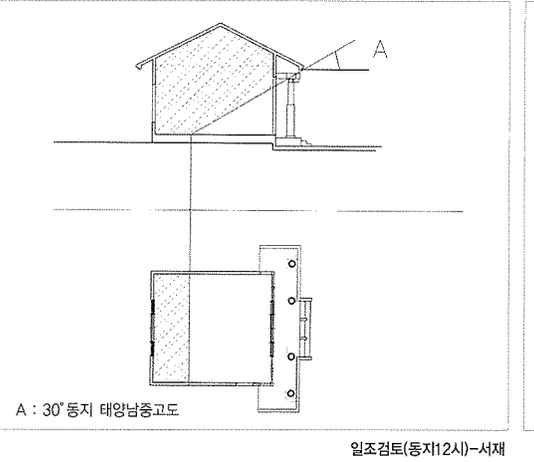
A : 시점
B : 수덕산(덕숭산) 정상
해발 495m

시선계획도 1
서재에서 바라볼 때 덕숭산(정상 해발 495m)의 상부일부분(해발 190m이상)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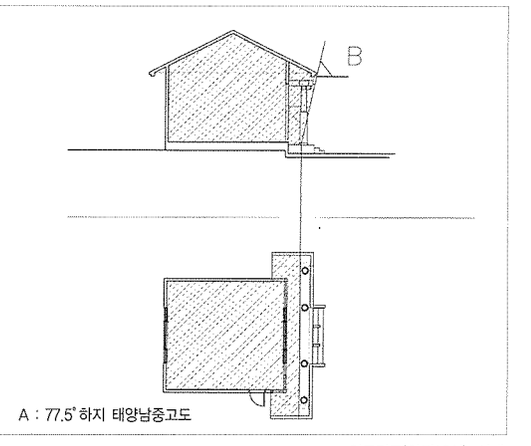
A - 139.15(시점)
139.95m(시야앞면 지붕상부)
187.02
D - 수덕산(덕숭산) : 495m

시선계획도 2
서재에서의 시선보다 남쪽 행랑채의 지붕 용마루의 높이가 2-3도 가량 높게 계획되었다.



A : 30° 동지 태양남중고도

일조검토(동지12시)-서재
동지정오 때의 일조정도를 검토하였다. 서재의 절반이상에 햇빛이 든다.



A : 77.5° 하지 태양남중고도

일조검토(하지12시)-서재
하지정오 때의 일조정도를 검토하였다. 서재의 안쪽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다.

토는 국립지리원에서 구입한 1:2만5천 축척의 지도에서 등고선의 높이와 계획대지의 해발 등고선의 높이를 감안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설계단계에서 3D 작업이 없이도 거의 실제상황에 근접한 시야확보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일조의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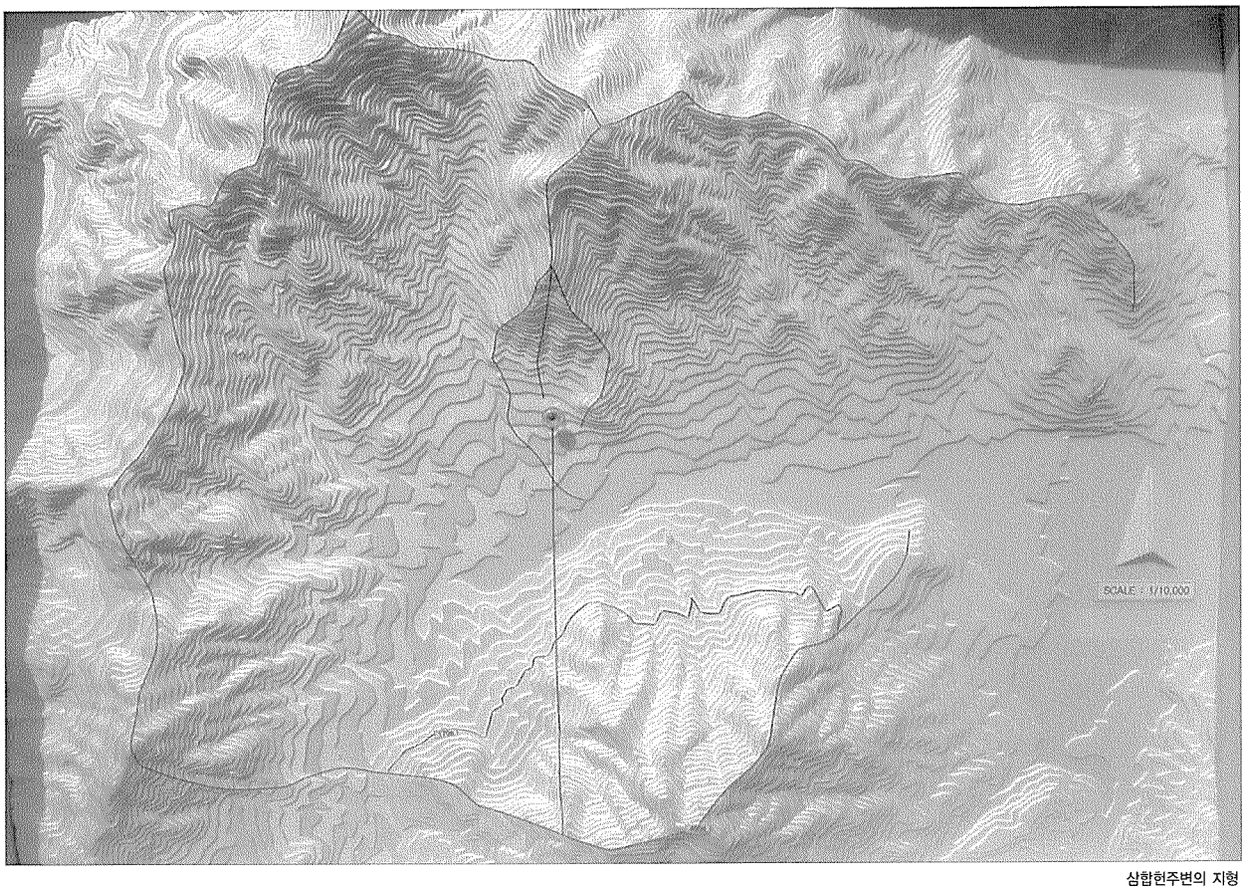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미음자' 집은 중정에 면한 실들의 일조량이 부족해지기 쉬운 단점을 갖고 있다. 삼합헌에서는 동지 때와 하지 때의 태양의 방위각과 고도를 기준으로 실내에 햇빛이 들어오는 정도를 검토하였다. 각 12시의 남중고도를 중심으로 검토해본 결과 적정한 량의 일조가 공급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대한 검토는 이경회교수의 저서 「건축환경계획」을 참조하여 춘분, 하지, 추분, 동지 때의 일조(日照)량을 대상으로 하였다.

'낮은 곳은 높이고, 높은 곳은 낮춘다'는 것이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건축의 논리인데 이곳의 경우는 그 이론에 꼭 맞추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진입도로의 접근 방향이 동쪽에서 이루어지므로 서쪽에다 용마루가 제일 낮은 대문 칸을 구성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서고동저의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은 형식의 건축물이 되었다는 뜻이다. 서고동저의 지형일 때 건축은 동고서저의 형식이 되는 것이 논리상 옳은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를 잘 따르고 있는 건축사례는 강릉에 있는 '선교장'이다. 너무 이론과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지형의 특성이 무시되어 무리한 형식의 건축이 나오기 마련이다. 서고동저의 지형은 넓은 국면에서의 조건이고 진입도로의 방향은 근접한 국면의 조건이다. 근접하고 직접적인 조건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것 또한 전통건축의 기본적인 논리이다. 그래서 이번 '미음자' 집은 누가 뭐래도 '서고동저' 형이 되어야한다. 서고동저형의 집은 일조(日照)의 조건에서 여러 가지 유리하다. 서고동저형의 주택에서는 해가 일찍 뜨고 일찍 저문다. 동남쪽의 햇빛을 오래 받고 서남쪽의 햇빛은 짧게 받는다.

전통건축에서 권위의 상징이었던 솟을 대문이 삼합헌에서는 낮은 맞배지붕으로 처리되었다. 어떻게 보면 행랑채의 지붕보다 더 낮게 처리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삼합헌의 건축에서 대문 칸의 지붕이 낮아진 것은 대문이 갖고 있는 권위 보다는 중정에서의 시야확보에 더 가치를 두었다.

미음자집의 기하학

건축평면이나 배치도를 그림에 있어서 기하학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면, 면의 분할



삼합헌주변의 지형
주산인 원효봉에서 현무, 좌청룡, 우백호의 산줄기가 뻗어 내려온다. 앞에 있는 산이 덕숭산이다.